



언제나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평화세상을 여는 녹색교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한적한 오솔길
사랑과 나눔을 배우고 실천하는 곳
청파교회는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몽골식약화 방지를 위한 은송의숲 만들기

주 일 낮 예 배 순 서

【 대림절 제1주 】

전 주	반주자
임재의 기원	거룩 거룩 거룩하신 주 다함께
예배로의 부름	인도자
♠ 경배의 찬송 8(통9). 거룩 거룩 거룩 전능하신	다함께
♠ 공동기도	다함께

자비하신 하나님,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며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기가 되었습니다. 그 어느 해보다 주님 오심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 평화 없는 이 땅에 속히 평화의 왕으로 오십시오. 전쟁의 소문 늘어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평화로운 나라를 이루어 주십시오. 사람이 사람을 죽이고, 동족이 동족을 죽이는 불상사가 다시는 이 땅에서 일어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주님, 마음이 불안하고 주변이 어수선한 가운데서도 한 해는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주님께 우리의 흔들리는 마음을 붙들어 매게 하시고, 이 혼란스러운 가운데도 마땅히 가야할 길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성실함을 잃지 않게 하시며 사랑함을 멈추지 말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 참회의 침묵기도	다함께
♠ 위로의 말씀	사58:11,12 인도자
♠ 교 독 문	73. 이사야65장 다함께
♠ 영 광 송	2. 찬양 성부 성자 성령 다함께
대표기도	I. 황경순 집사 II. 방문성 장로
응 답 송	찬양대
찬 양	96(통94). 예수님은 누구신가 다함께
성경봉독	I. 막3:13-19 김지원 학생
	II. 시80:14-19 이건식 집사
찬 양	찬양대
말 씬	I. 제자들을 부르시다 이성운전도사
	II. 우리를 회복시켜 주소서 김기석 목사

- 찬 양 543(통342). 어려운 일 당할 때 다함께
- ♠ 봉 헌 317.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1,5절) 다함께
- ♠ 봉헌 및 목회기도 인도자
- 공동체 소식 인도자
- ♠ 평화의 인사 다함께
- ♠ 보냄의 말씀 다함께

인 도 자 : 교우 여러분, 이제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복음의 말씀을 들었으니 참 자유인답게 사십시오. 아픔과 상처 가득한 세상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길 간구하며 사십시오. 회복의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평화의 사람이 되어 사십시오.

다 함 께 : 아멘. 전쟁을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 생각하며, 평화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 없이 살아온 지난날의 모습을 반성합니다. 평화를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간구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십시오. 아멘.

- ♠ 찬 양 635. 주의 기도 다함께
- ♠ 축 복 담임목사

☉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환히 열린 미래를 봅니다** ☉

주일 오후 집회	수요 집회
말씀 : 김기석 목사	12월 기도의 밤
	인도 : 김기석 목사

다음 주 예배위원	설교	기도	성경봉독
	김재흥 목사	곽권희 권사	최연우 학생
	김기석 목사	한상익 장로	김금순 집사

11월	영접위원	한완식 이호원 곽상준 정현숙 백성례 최경미
	헌금위원	한상익 이형숙 (보조 : 다른 재무부원들)

닫힌 집단과 열린 집단

때때로 함께 나아가기 위한 명분과 공동체의 목표가 인간적인 관계를 질식시킬 수 있다.

각 개인들은 더 이상 인격체로, 마음과 마음이 만나는 관계로 만나지 않는다. 동일한 목표에 의해 유발되는 같은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만난다.

사실 어떤 사람은 타인과의 관계를 피하기 위해 한 집단의 목표와 활동에 전념한다. 그들은 상대의 가치를 목표와 이상을 나누는 집단의 구성원으로서만 바라볼 뿐 그들 안의 개별적 인격으로는 보지 않는다.

우리는 라르슈에서 이런 주제들의 복합성을 바라보기 시작했으며, 공동체 생활의 초기 단계에서 우리는 구성원들 간에 결속을 강화할 수 있었다.

그것은 공동체 모임과 회식, 종교적 전례, 공동 기도 시간과 공동 여가 시간 등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리고 각 개인들에게 주어진 관심을 통해서도 이루어졌다.

또한 공동체 생활의 강도는 그들에게 필요한 지적이고 영적인 자양분을 찾고, 안정감 속에서 살도록 도와주는 사람 위주의 체제로 갖추어 갔다.

동시에 이런 강도 높은 공동체 생활은 더 넓은 이웃과 사회로부터 공동체를 분리시켰다. 구성원들의 독립과 인격적 자유, 관계성 그리고 내적인 성숙으로 성장하는 것을 방해했다.

그때 공동체 생활은 안전한 “이념”의 세계처럼 되어버린다. 그리고 그곳에서 공동체 구성원의 모든 요구를 돌보아줄 것으로 기대된다. 물론 그러한 공동체 생활은 충족되지 못한 기대와 변함없이 발생하는 내적인 분쟁들 때문에 망가지게 될 때까지만 지속된다. 그러나 만약 공동체가 그 주변 지역 안에서 온전한 투신을 하게 하면 정체성을 잃게 될 수 있다. 공동체 구성원들은 서로 다른 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웃들과 하나가 되려고 함으로써 그들의 소속감이나 집단의 정체성 그리고 그들의 비전이 점차로 사라지게 된다.

어떤 가치와 영성 안에서 성장을 촉진하는 분명한 정체성을 지니는 폐쇄성과 같은 가치를 가지고 살지 않은 이들에게 행하는 개방성 간에 균형을 맞추기는 쉽지 않다.

이것이 모든 종교와 모든 그리스도교 교회의 도전 과제라고 말할 수 있다. 지나치게 개방적이면 생활의 질이 희석되어 성숙과 지혜를 향한 성장을 방해할 수 있고, 반면에 너무 폐쇄적이 되면 질식할 수 있다.

여기서 공동체가 삶과 실질적인 소속감을 보존하고 심화시킨다. 뿐만 아니라 생명을 주고받는 조화를 찾도록 도와주는 지혜와 성숙과 공동체 구성원의 내적 자유가 요구된다.

이때 공동체는 모든 이를 개방성과 자유, 공동 선을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게 돕는 참인간이 되는 환경이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모든 그리스도교 믿음의 머리요 가슴인 예수님이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라는 질문의 답은 흥미로운 것이다.

그분은 가깝게 살고 있는 이들이나 삶과 종교에 대한 동일한 비전을 나누는 이들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다. 그분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에게 습격을 당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가 길가에 누워 있을 때 그를 도와줄 것이라 기대하던 공동체 출신 사람은 그냥 맞은편으로 지나가버렸다. 그러나 다른 종교의 공동체 집단에 속한 낯선 사람이 멈춰 그를 돌보아주었다. 상처받은 사람을 이웃으로 보고 그를 이웃으로 대접해주면서, 이웃으로서 당연한 행동을 해주었던 사람은 분명히 낯선 사람이었던 착한 사마리아인이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통해 사람들을 가르쳤고, 사람들을 보편적인 인간성의 비전으로 이끌어주었다. 그곳에서는 자비와 친절이 이념보다 더 중요하다.

- 『인간 되기』 (장 바니에 지음, 제병영 옮김) 중에서

※ 『인간 되기』 책이 ‘다른우리’ 출판사에서 번역 출판되었습니다.

마늘촛불

복효근

삼겹살 함께 싸 먹으라고
얇게 저며 내놓은 마늘쪽 가운데에
초록색 심지 같은 것이 뽀족하니 박혀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마늘어미의 태 안에 앉아있는 마늘아기와 같은 것인데
내 비유법이 좀 과하다 싶기도 하지만
알을 잔뜩 품은 굴비를 구워 먹을 때처럼
속이 짜안하니 코끝을 울린다
무심코 된장에 찍어
삼겹살 함께 씹어 삼키는데
들어킨 소주 때문인지
그 초록색 심지에 불이 붙었는지
그 무슨 비애 같은 것이 뉘우침 같은 것이
촛불처럼
내 안의 어둠을 살짝 걷어내면서
헛헛한 속을 밝히는 것 같아서
나도 누구에겐가
씩이 막 돌기 시작한 마늘처럼
조금은 매콤하게 / 조금은 아릿하면서
그리고 조금은 환하게 불 밝히는 사랑이고 싶은 것이다

◇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이들 ◇

담임목사 : 김기석	부담임목사 : 김재흥	원로전도사 : 박옥식
전도사 : 장영숙 이성운 손성현		
소속목사 : 김준우 한인철 양재성 한정애		
원로장로 : 전영규 김성한 윤정덕 강인식 김철수 구성실		
장로 : 조병무 한완식 윤석철 방문성 한상의 김인걸		
지휘 : 윤주원 안홍숙	반주 : 최윤선 김수진 김아영	
차량 및 교회 관리 : 오진훈	도서관장 : 박혜경	

◇ 헌금영수기 ◇

십일조헌금:

윤정덕 구성실 조병무 송양진 한상익 정영선 김윤수 박상호 김혜권
 박재임 박규석 박경선 박창운 허정윤 임승동 백혜숙 조관행 홍선희
 허호범 박성실 박시내 홍순구 안홍숙 이재문 리 봄 장원호 박성희
 전해리 신인경 김지호 이성운

월정헌금:

김수진 김승현 배부례 송임희 윤성종 김윤정 이봉배 황의일 이현숙
 유지은 이봉옥

감사헌금:

전 용 김정애 조은나 전우련 이정은 하재두 이재문 김용진 박효선
 전재숙 예인교회청년부 무명7

녹색꿈 헌금:

윤정덕 최경미 박병구 김준우 윤성종 김윤정 오복순 김주희 김주현

생일감사헌금:

조관행 홍선희 조병무 조해인

속명	인도자	속장	모인곳	다음장소
예루살렘	장혜숙	박성실	쉼	박영희
베들레헴	노순옥	정경례	김윤수	김미순
안디옥	임정자	최경미	이재문	야외
가나안	문영혜	이명희	신영신	이명희
갈릴리	안정숙	진정숙	박옥순	안정숙
베다니	박홍재	곽권희	김경수	박홍재
시온	박효선	허정윤	허정윤	홍복선
엠마오	최숙화	권미정	최숙화	권미정
에베소	이순정	김금순	오복순	유영남
빌립보	이형숙	권미숙	구성실	권미숙
가버나움	안홍숙	오현정	박찬정	안홍숙
나사렛	정영선	백혜숙	김희우	정영선
갈라디아	유경순	김수진	김혜권	송양진
고린도	이영란	이증자	윤정화	박미영
다메섹	박혜경	최영혜	정현숙	정현선

■ 교/회/소/식/

◎ 그리스도인에게 선교는 의무가 아니라 기쁨입니다 ◎

1. **대림절** :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이 이번 주부터 시작됩니다. 마음의 촛불을 밝히며 주님을 기다립니다.
2. **기도의 밤** : 이번 주 수요집회는 기도의 밤으로 모입니다. 기도회 중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3. **보고서** : 당회 준비를 위해 각 부서와 선교회의 2010년 활동보고서를 오늘 까지 사무실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 **기획위원회** : 오후 집회 후에 세미나실에서 모입니다.
5. **당회** : 2010년 당회가 12월 12일 오후2시 친교실에서 열립니다.
6. **세례입교교육** : 이번 성탄절에 세례 받기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로 신청하셔서 교육일정을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7. **여선교회 회장 모임** : 2부 예배 후에 여선교회 회장 모임이 세미나실에서 있습니다.
8. **체육행사** : 남선교회가 주관하는 11월 체육행사는 축구입니다. 오늘 오후 5시 잠실 풋살 경기장에서 열립니다.
9. **단비교회 쌀** : 천안 단비교회 유기농 쌀을 판매합니다. 구입을 원하시는 분은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0. **결혼** : 장준호 씨와 심미연 씨가 12월 4일(토) 11시 30분 목동 웨딩의 전당에서 결혼합니다. 축하합니다.
11. **신앙실천** : 갈등을 일으키는 말보다는 평화를 이룰 수 있는 말을 하며 사십시오.

* 식당 봉사 : 베다니 속 (다음 주 : 베다니 속)

* 설거지 봉사 : 김승일 김경선 이준하 (다음 주 : 박시내 이성범 이광욱)

* 새교우 : 이준림(3여) 노준우(5남) 한상균(5남)

◇ 집 회 안 내 ◇

부별	시간	장소	부별	시간	장소
유 아 부	10:50	유아부실	1부예배	09:30	교육관
유 치 부	10:50	유치부실	2부예배	11:00	대예배실
유초등부	10:50	교육관	오후집회	14:00	교육관
중고등부	10:50	중고등부실	수요집회	19:30	교육관
청년회	13:30	청년회실	새벽기도회	06:00	교육관

* 우리교회의 주보는 재생용지를 사용하여 만듭니다 *